

News

가계대출 여력 10조 줄인 5대銀, 올해 기업대출 42조 늘린다

머니투데이

국내 5개 주요 은행, 올해 신규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가계대출에 비해 12조원 이상으로 늘려 잡아…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워 우량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활로 찾겠다는 의미 5대 은행 올해 기업대출 확대 목표는 평균 증가율 6.68%, 합산 증가액은 42조 4,472억원… 우리은행이 8%로 가장 적극적인 성장 목표 제시

‘꼼수 사업자대출’ 막는다… 가계대출과 통합 심사

동아일보

금융감독원,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가계 대출 규제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 받는 꼼수를 피하기 위함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활용해 대출 한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 예정… 취약 차주 지원 종료 대비 충당금 적립도 유도

‘최초·최초·최초’ 인터넷은행 대출 대전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들, 연이은 신규 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 유치 경쟁 심화… 토스뱅크, 14일 인터넷은행 최초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출시 카카오뱅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정식 출시 초읽기…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기존 대출자의 고정금리 갈아타기 수요 노려…

금융지주 영구채 발행 줄줄이 흥행

매일일보

금융권, 급격한 금리 상승 대비 자본 차입 서두르는 중… 신종자본증권(영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전략 KB금융 16일, 우리금융 17일 영구채 발행… 지난 1월 발행한 신한지주는 380억원의 자금 받아… 대부분 선방했으나 채권 평가 손실로 소극적 크레딧 채권 투자 증가 관측

보험사도 '역대급 실적'…DB손보 영업익 '1조'·한화생명 순익 '1조' …

이데일리

주요 보험사들, 작년 사상 최대 규모 실적… 삼성화재에 이어 DB손보가 영업이익 1조원 클럽 달성… 총 1조 1,097억원 영업이익…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대 수준 하락 영향 생보사에서는 한화생명이 전년대비 496.3% 증가한 1조 2,415억원 순익 거두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한화투자증권을 연결자회사로 편입한 효과

수리비 내연기관차의 31% ↑ …내연기관차 차주 부담 전가 우려

e대한경제

전기차 등록대수, 2021년 기준 23만 1,443대… 다만 수리비가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비싼 것이 현실… 평균 수리비 237만원으로 내연기관차 대비 31% 높아… 전기차 보급 빠르게 진행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 전망… 더 많은 대물보상 필요하기 때문… 당국은 손실금액을 보험사가 일부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

카카오페이증권, 공정자산 40% 이상 증가…유상증자 영향

CEO스코어데일리

카카오페이증권, 공정자산이 1년 사이 273억 4,600만원 증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확충했기 때문… 2021년 12월 1,02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가 단행 리테일 사업 강화하기 위한 목적… 간접투자로 시작해 직접투자로 범위 확대하겠다는 방침… 조만간 MTS 서비스 개시 예정

증권사도 ‘스타트업 자금줄’ 된다… 혁신기업투자 경쟁 격화

머니S

증권업계 새로운 면거리로 부상한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시장 선점 경쟁 치열…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 영향 운용자격은 연 평균 수탁액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등의 금융투자회사 및 벤처캐피탈 해당… 관련 개정안 통과시 올 상반기 중 공식 도입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